

# “방탄소년단이 롤모델” 한일 9인 보이그룹 T1419 출사표

데뷔곡 ‘아수라발발타’... “팀명, 첫 만남 의미하며 초심 담아”

한국인 5명·일본인 4명 팀 조화... ‘모모랜드’ 남동생 그룹

“방탄소년단(BTS) 선배님들을 닮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지켜봐주세요.”

MLD엔터테인먼트가 론칭하는 신인 보이그룹 T1419가 베일을 벗었다.

T1419는 11일 오후 6시 각 음원사이트를 통해 데뷔 1집 싱글 앨범 ‘비포 선라이즈(BEFORE SUNRISE) Part.1’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T1419는 이날 오전에 열린 데뷔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간장되지만 무대에 서니 드디어 실감이 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9명으로 이뤄진 T1419는 한국인과 일본인 멤버로 구성돼 있다. 한국인 멤버인 리더 노아, 시안, 케빈, 건우, 온과 일본인 멤버 레오, 제로, 카이리, 키오가 있다.

데뷔 앨범 ‘비포 선라이즈 Part. 1’은 ‘오랫동안’을 찾기 위한 T1419의 첫 여정이다. ‘비포 선라이즈’는 총 4부작으로 시리즈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각 시리즈를 대표하는 천체 현상들은 T1419의 성장기를 표현함과 동시에 거대한 세계관을 그려낸다. 첫 번째 장을 구성하는 천체 현상

은 ‘개기일식’이다. 태양이 달에 가려진 개기일식을 본능이 자아를 지배해버린 시기로 표현했다.

타이틀곡 ‘아수라발발타(ASURABALBALTA)’는 힙합, EDM 기반에 트렌디한 사운드와 독특한 소스의 테마 리드가 특징인 곡이다. ‘아수라발발타’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뜻을 담은 주문으로, 위기를 마주하고 이겨내겠다는 가사를 통해 혼란을 돌파하려는 의지와 염원을 담았다.

시안은 “데뷔 앨범은 완전한 자신으로서의 성장을 뜻하는 선라이즈를 향하는 여정을 담았다”며 “이번에는 그 중 성장기인 청소년을 담은 앨범으로, 소년으로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전한다”고 설명했다.

팀명인 T1419는 멤버들이 처음 만났을 때를 의미하며 초심을 담았다. 리더인 노아는 “T는 10대인 틴에이지(teenager)를 뜻한다. 1419는 14살부터 19살이었을 때 저희가 처음 결성됐다”며 “연습할 때 팀명을 보면서 초심을 찾자는 의미를 담았다. 또 10대는 한창 고민이 많은 시기인데, 10대를 대변하고 동시에 아우르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건우는 “사실 팀명이 저희의 첫 이름이자 가칭이기도 했다”며 “가칭이었을 때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며 소중하게 생각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와서 보니 저희 팀명보다 멋있는 팀명은 없는 것 같다”고 자신했다.

지난해 많은 대형 신인그룹들이 데뷔한 만큼 T1419만의 차별점은 무엇일까.

제로는 “매력 포인트는 한국인 멤버가 5명, 일본인 멤버가 4명으로 이뤄진 그룹인 점”이라며 “두 나라에서 온 저희가 하나가 되어 보여드리는 무대, 조화를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키오도 “저희는 완성형 신인 아이돌”이라며 “이미 프리 데뷔곡 ‘드라큘라’와 국제계인전시회 ‘지스타 2020’을 통해 1시간의 공연을 펼치며 팬덤 팬미팅을 했다”고 밝혔다.

T1419는 같은 소속사인 ‘모모랜드’의 남동생 그룹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들은 데뷔에 앞서 모모랜드가 조인도 해줬다고 전했다.

온은 “얼마 전에 모모랜드 선배님들과 가요대전 무대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연습 과정에서 조언을 많이 해줬다”며 “그중 제인 선배님이 멤버 수가 많을수록 킬링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끼를 잘 살려서 모두 다른 매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떠올렸다.

노아도 “모모랜드 선배님들이 무대에 서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보람찬 일도 많을 거라고 했다”며 “기대해도 좋을 만한 것들이



많은 거라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해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팬들을 먼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안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반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택트 시기에 발맞춰 어떻게 팬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SNS나 온라인 콘텐츠 등 다채로운 의견을 내고 궁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오도 “코로나19가 끝나면 어느 나라든 가겠다. 불러만 달라”고 웃었다.

이날 데뷔곡 공개를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T1419는 향후 얻고 싶은 수석으로 팀명 ‘T1419’ 그 자체로 불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롤모델로는 글로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을 꼽았다. 건우는 “롤모델은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이라며 “무대에서의 각 잡힌 퍼포먼스와 높은 수준의 표정연기를 보면서 저희도 한 곡을 표현하는 데 있어 우리 자신 자체를 보여줄 수 있고 곡의 표현력을 뛰어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아는 “저희는 정말 각오가 남다르다. 매일 꿈 너머에 꿈을 꾸다”며 “어제는 데뷔가 꿈이었다면, 오늘은 멤버 모두가 행복하길 꿈꾼다. 내일은 더 유명해지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길 바랄 것 같다. 매일매일 새로운 목표와 꿈을 꾸는 만큼 기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엔씨 ‘유니버스’, 사전 예약 200만 돌파

전 세계 188개국 케이팝 팬 참여 중...올해 초 글로벌 동시 출시 예정

엔씨소프트는 출시 준비 중인 케이팝(K-POP)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유니버스(UNIVERSE)’의 사전 예약이 200만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188개국 케이팝 팬들이 사전 예약에 참여하고 있다.

유니버스 공식 사이트 사전 예약은 마감했다.

현재 사전 예약은 구글 플레이에서 진행 중이며,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곧 시작할 예정이다.

엔씨는 사전 예약자들에게 ▲추후 개최할 아티스트 관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응모권 ▲유니버스의 ‘Studio(스튜디오)’ 콘텐츠에서 아티스트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의상 ▲팬덤 활동을 도와주는 ‘웰컴 굿즈’ 획득에 필요한 스탬프를 제공한다.

유니버스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팬덤(Fandom) 활동을 모바일에서 즐길 수 있는 올인원(All-in-one) 플랫폼이다. 2021년 초 글로벌 시장 동시 출시를 앞두고 있다.

## ‘미나리’ 윤여정, ‘할머니 힘’...美 연기상 8관왕

클럽버스 비평가협회 여우조연상

영화 ‘미나리’(감독 정이사)의 배우 윤여정이 미국에서 연기상 트로피를 추가했다.

11일 배급사 판씨네마에 따르면 윤여정은 최근 클럽버스 비평가협회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고, 전미 비평가협회(NSFC) 여우조연상에서 러너스업(RUNNERS-UP·우승 다음)의 성과에 선정됐다.

전미 비평가협회에서는 오스카 유력 후보인 아만다 사이프리트와 함께 조연상에 올랐고, 클럽버스 비평가협회에서는 2019년도 아카데미 수상 배우인 올리비아 콜맨과 경합 끝에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차지했다.

이로써 윤여정은 LA, 보스턴,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클럽버스, 그레이터

웨스턴 뉴욕 비평가협회와 미국 여성 영화기자협회, 그리고 선셋 필름 서클 어워즈까지 미국에서 연기상 8관왕을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미나리”는 샌디에이고 비평가협회의 여우조연상, 남우조연상, 각본상과 노스 다코타 비평가협회의 여우조연상, 남우조연상까지 노미네이트되며 오스카 입성의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영화는 1980년대 미국 아칸소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로, 정 감독과 가족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았다.

윤여정은 스티븐 연과 한여리 부부를 돕기 위해 한국에서 온 할머니 순자를 연기했다.

뉴스

## 청하, 코로나 확진으로 연기한 첫 정규앨범 내달 발매

선공개 싱글 ‘X’, 오는 19일 공개

가수 청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했던 첫 정규앨범을 다음달 발매한다.

청하는 오는 2월15일 오후 6시에 첫 정규앨범 ‘케렌시아(Querencia)’를 발매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19일 오후 6시에는 선공개 싱글 ‘X(걸어온 길에 꽃밭 따윈 없었죠)’를 공개한다.

11일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된 티저에는 붉은색 기발과 함께 선공개 싱글 ‘X(걸어온 길에 꽃밭 따윈 없었죠)’와 첫 정규앨범 ‘케렌시아’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궁금증을 더했다.

특히 새해 활동의 포문을 열 첫 정규앨범 선공개 싱글 ‘X(걸어온 길에 꽃밭 따윈 없었죠)’는 청하의 삶의 한 페이지를 가사로 진솔하게 표현해낸 곡이다. 마음을 파고드는 풍성한 멜로디가 특징적인 모던 록 팝 넘버로, 청하만의 깊은 감성으로 또 다른 새로운 매력을 담아냈다.

청하는 지난 1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굿바이 2020, 웰컴 2021(Good bye 2020, Welcome 2021)’ 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솔직히 지진다’, ‘스테이 투나잇(Stay Tonight)’, ‘플레이(PLAY)’, ‘배드 보이(Bad Boy)’, ‘드림 오브 유(Dream of You)’ 등 지난해 활동 파노라마와 함께 2021년 더욱 활발해질 활동을 예고했다. 앞서 청하는 지난해 12월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18일 격리 해제됐다. 이로 인해 본래 12월과 1월에 예정했던 선공개 싱글과 첫 정규앨범 발매를 연기했다.

## JYP “갯세븐과 재계약 안해...새로운 미래 응원”

업계 “사실상 해체했다고 보고 있어”

그룹 ‘갯세븐(GOT7)’ 일곱 멤버 전원이 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떠난다.

JYP는 “오는 19일 갯세븐과 전속 계약 만료를 앞두고 멤버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양 측은 보다 새로운 미래를 기원하며 합의하여 재계약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11일 이 같이 밝혔다.

“K팝과 JYP의 성장에 함께해 준 갯세븐, 그리고 데뷔와 함께 아낌없는 성원으로 갯세븐의 활동에 원동력이 돼 주신 ‘I GOT7’을 비롯한 모든 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

한다”고 했다. “공식적인 인연은 마무리되지만 JYP는 앞으로 갯세븐 멤버들이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갯세븐 멤버들의 전속계약 완료를 앞두고 잇따라 이적설이 불거졌다. 배우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진영은 BH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앞두고 있다. 유겸은 힙합 레이블 AOMG와 미팅했다. 또 다른 멤버 영재는 씨브라인아티스트와 논의 중이다.

다른 멤버들 역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2014년 데뷔한 갯세븐은 2PM을 잇는 JYP의

간판 보이그룹으로 활약해왔다. 3세대 K팝 대표 보이그룹 중 하나다. ‘니가 하면’ ‘하드캐리’ 등의 히트곡을 냈다.

지난해 11월 정규 4집 ‘브리스 오브 러브 : 라스트 피스(Breath of Love : Last Piece)’를 발매했다. JYP에서 낸 마지막 앨범이다.

지난 10일 ‘제35회 2021 골든디스크 어워즈’ 참석이 JYP와 함께 하는 마지막 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갯세븐이 사실상 해체됐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소속사가 달라도 함께 활동하는 그룹 ‘god’의 선례처럼 계속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 트와이스, ‘아이 캔트 스톱 미’ 뮤비 2억부 돌파

그룹 ‘트와이스’의 ‘아이 캔트 스톱 미(I CAN'T STOP ME)’ 뮤직비디오가 2억부를 돌파했다.

11일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가 지난해 10월26일 발표한 정규 2집 ‘아이즈 와이드 오픈(Eyes wide open)’의 타이틀곡 ‘아이 캔트 스톱 미’ 뮤직비디오는 10일 오후 8시 39분경 유튜브 조회 수 2억회를 돌파했다.

이는 뮤직비디오 공개 약 77일 만이다. 기존 ‘라이키(LIKE)’가 가진 가장 빠른 2억부 돌파 기간을 단축시키며 그룹 자체 최단 기록을 경신했다.

‘아이 캔트 스톱 미’는 JYP엔터테인먼트 수장이자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과 히트곡 메이커 심은지 작사가가 함께 작사해, 선과 약의 기로에 서서 스스로를 제어하기 힘든 마음을 감

각적으로 그려냈다. 이 곡이 담긴 두 번째 정규 음반은 지난해 12월19일자 ‘빌보드 200’ 차트 72위에 올랐다.

또 트와이스는 2일자 미국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크라이 포 미(CRY FOR ME)’가 정상을 차지했다.

“크라이 포 미”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2020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즈’에서 팬들을 위해 깜짝 첫 선을 보인 곡으로, 포브스로부터 “트와이스는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견고한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미니 8집 ‘필 스페셜(Feel Special)’의 동명 타이틀곡도 11일자 빌보드 재팬 스트리밍 송 차트에서 누적 재생 횟수 1억회를 돌파했다.

